

삼성전자에게 실망한 이유와 대응 전략

KOSPI 6,696pt(-3.1%), KOSDAQ 813pt (+1.4%)

① 해외 상황 잔존한 우려

-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금리 상승에도 경제지표 호조와 업종 순환매에 힘입은 상승 (나스닥 +0.4%, S&P500 +0.4%,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8월 S&P글로벌 Markit PMI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 경기 둔화 우려 완화. 그럼에도 강한 지표와 대규모 회사채 발행 가능성에 미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 30년물의 경우 5.3% 육박. 에너지가격도 여전히 하향안정화 되지 않음. 반도체의 경우 엔비디아 실적 앞둔 경계감 속 관망세

② 수급 외국인 대규모 투매에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지 않은 이유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3.3조, 외국인 -3.7조, 기관 -1.3조원 순매수. 기타법인 오늘도 1.7조원 이상 순매수 하며 자사주 매입 효과 확인됐으나 그 이상의 외국인 투매 나오며 하락. 자사주 매입 효과 부재했다면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을 것

③ 특징업종 대형주 쉬어가니 순환매

- 1) **귀금속**: 미 재정 및 국채 불안과 달러 약세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금값 온스당 4,600달러 넘어서며 안전자산 및 귀금속 관련주 동반 강세(아이티센글로벌 +16.4%, 고려아연 +8.7%, 영풍 +5.8%) 2) **mRNA**: 모더나, MSD의 개인맞춤형 mRNA 암백신 3상 성공으로 항암백신 상용화 기대가 커지며 아이진, 큐라티스 등 국내 mRNA 플랫폼, 전달체 관련주 급등(한미약품 상한가, 한미사이언스 +25.7%) 3) **2차전지**: 중국 광산 재가동 지연과 공급 부족 우려로 탄산리튬 현물가격 급등 & 업황 개선 기대(삼성SDI +7.7%, LG에너지솔루션 +5.4%)

④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주환원 내용 정리

- 삼성전자 주주환원 핵심은 '2026년 90~110조원 추가 환원, 3개년 누적 120~140조원'. 다만 당장 확정된 자사주 소각 규모 부재
- 1) 2026년 주주환원: 90~110조원
- 2) 2024~2025년 기집행: 29.3조원(현금배당 20.9조원 + 자사주 매입·소각 8.4조원)
- 2024~2026년 누적: 119.3~139.3조원
- 3) 2026년 3분기: 약 30조원 현금배당 예정
- 잔여 재원: 약 60~80조원 → 2027년 1월 배당·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최종 결정
- 4) 환원 기준: 기존 누적 FCF의 50% 유지, SK하이닉스처럼 환원을 상향은 없음
- 5) 별도 15조원 자사주 매입: 임직원 보상 목적이라 주주환원용 자사주 소각과는 별개. SK하이닉스처럼 주주환원용 자사주 매입 소각은 부재. 매입만으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 평가하기 어려움. 소각 병행 필요

⑤ 상황 삼성전자에게 실망한 이유와 대응 전략

- 금일 KOSPI, KOSDAQ 각각 -3.1%, +1.4% 등락.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 속 기대감에 급등하던 S7 동반 하락(삼성생명 -13.1%, 삼성전자 -8.7%, 삼성전자우 -8.6%, 삼성물산 -7.8%, SK스퀘어 -4.2%, SK하이닉스 -3.4%, 삼성전기 +0.2%). KOSPI 대형주와 역의 상관관계 보이는 KOSDAQ은 2차전지, 바이오, 의료기기 주도하며 반등. 그러나 떨어질 때는 KOSPI 상승 폭보다 더 떨어지고 반등할때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 KOSDAQ 수급 주체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 지속되고 있기 때문
- 삼성전자 주주환원 실망 원인**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은 절대 규모보다 환원 방식과 확정성에서 발생. 2026년 90~110조원, 3개년 누적 120~140조원은 사상 최대 규모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당장 확정된 30조원은 현금배당. 특히 SK하이닉스가 40조원 전량 소각과 FCF 환원기준 상향을 동시에 제시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실망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금산법상 10% 한도에 근접해 있어, 추가 소각 시 지분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자사주 매입·소각 여력이 제한되었다는 상황 판단 역시 실망감으로 작용. 배당은 소득세를 부

· **대응 전략** 다만 이를 주주환원 정책 자체의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과도. 3개년 누적 환원 규모는 120~140조원으로 사상 최대, 3분기 30조원 배당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추가 환원재원이 남아 있음. 결국 오늘 급락은 펀더멘털 훼손보다 SK하이닉스 발표 이후 과도하게 높아진 '대규모 매입-소각' 기대와 선반영된 주가가 되돌려진 성격이 강하며, 향후 남은 재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이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주주환원 외에도 이번주 한국시각 27일 새벽 6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경계감 속 지난주말 미국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종이 악보합 마감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지나쳤던 기대감의 일부 되돌림과 경계감이 원인이라고 선호 의견 유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